I·SEOUL·U
너와 나의 서울

2020년 제1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회의록

2020. 1.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청탁금지법 준수사항 안내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대상에 해당하여, 미술작품심의 위원들은 심의와 관련된 신청자 또는 이해당사자와 개별접촉(전화, 대면 등)의 회피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당사자의 방문, 전화 등을 이용하여 청탁을 위한 접촉을 하였을 경우 이를 위원회 회의 시 공표하도록 하고, 심의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술작품심의의 평가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 향응,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의 위반행위를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처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최근 청탁성 전화 및 문자 등의 사례와 관련하여, **위원회 심의 시 이를 공표하고 심의에 반영함**

〔관계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2호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2020년 제1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최

<회의개요>

◆ 일　시: 2020. 1. 9.(목) 14:00~
◆ 장　소: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 참　석: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 안　건: 총 18건 27작품 (조각 19작품, 회화 4작품, 미디어 3작품, 설치 1작품)
◆ 결　과: 승인 19작품, 부결 8작품

위원장: 조례에 의거해서 위원별 개별채점방식으로 진행되며 개별 자료검토 및 토론 후 채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심사방식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다른 방식을 제시하실 위원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 1번 안건: 자연-기억

- 작품 교체라는 명분은 분명하지 않으나 보완 전 작품과 비교할 때 리드미컬한 부분을 살리려 애쓴 흔적은 보임
- 형식과 내용의 진부함으로, 관람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지 못 함
- 리듬감과 완성도가 이전의 작품보다 보완된 것 같아 무난함
- 내부 공간의 변화가 리듬감 있고, 전체적으로 공간에서 친근하게 느껴질 것 같음
- 보완 전 작품보다 내부의 리듬감이 좋음
- 작품 설치 위치 뒤쪽으로 울퉁불퉁한 석가 상들과 매끈한 이 작품이 잘 어울린다고 보기는 어려움

▢ 2번 안건: 행복의 언어

- 기존의 부결사유인 '평범한 영상 내용'이라는 부분의 보완을 위해 작가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애를 쓴 것처럼 느껴져 긍정적임
- 지난 작품보다는 보완이 확실히 된 것 같고, 좋은 방향으로 보완된 것 같음
- '소년'이라든지 '계절에 따른 배경의 변화' 같은 주제를 잘 선택했음
- 기존의 명작을 재 전유하는 기법을 통해 현대적인 재해석을 시도하였음 이전 작품보다는 작가의 의도가 더 분명하게 전달되지만, 명작의 재전유가 다소 일차원적이고 기계적 병합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음
- 작가의 고유한 세계관을 엿보기 힘듦. 영상 작품을 상영하는 플랫폼으로는 기능할 수 있겠지만, 제시된 영상 작품만을 지속적으로 상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음
- 콘텐츠의 보완은 긍정적이지만, 조형적 표현이나 예술적 개성의 맥락에서, 다소 진부한 형식을 차용하여, 신선함이나 흥미를 주기는 어려움
- 이전 작품에서 봤던 평이한 영상이 많이 보완됨
- 시민들에게 친숙한 작품이 될 것 같음
- 미디어 영상이라는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지루해 질 수 밖에 없는데,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겠지만, 미디어 부분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

▢ 3-1번 안건: Spring(봄날)

- 조형적, 특히 형태적 전개가 흥미롭고 내외부의 소재 상의 변화가 Story를 유추하게 하는 무난한 조형물
- 작품이 어린이 놀이터 바로 옆에 설치되는바 뾰족한 돌출 모서리는 안전상 문제가 될 수도 있음
- 석재의 동적 변화가 공간을 신선하게 환기시키는 역할을 할 것
- 시각적인 화려함은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아쉬움
- 지난 작품보단 변경되었지만 평이하고 둔탁한 느낌은 여전히 느껴짐
- 그래픽과 같은 부드러움이 실제로 구현된다면 친근해 보일 것임
- 이전보다 좋은 방향으로 보완된 것 같음

▢ 3-2번 안건: 山水-기운생동

- 모든 방향에서 감상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측면이 너무 납작해서 조형적인 균형성이 부족해 보임
- 상호 이질적 표현방법을 접목하여, 예술성과 조형성이 탈색된 형태로 마무리된 이질적 조형물
- 작품의 맥락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고, 일방적 해석 같은 경향이 있음
- 산수화의 이미지 보다는 글자 'M'의 형태로 더 강하게 각인됨. 산수화에서 느껴지는 수묵의 감성이 조각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임
- 산수라기보다는 알파벳 M자로 보임
- 작품 배치가 지나치게 겹쳐 설치되는 점이 조형적 리듬감을 느끼기 어렵게 함
- 장식적 요소가 강하고 장소적 맥락 고려가 부족함
- 평면에서 볼 수 있는 매력이 입체적인 부분으로 오면서 약화된 느낌이 듦
- 작가의 필력은 내공이 느껴지는데, 조각으로의 전환이 아쉬움
- 회화에서 입체로의 조각적 변형 시도는 좋으나, 조형적으로는 아쉬움

▢ 4번 안건: Hangul Beans-느긋

- 개념적으로 단순하지만, '느긋'이라는 단어와 조형적 형태가 잘 어울려 효과적으로 기능할 듯함
- 발상이 흥미롭고 율동감 있는 조형성이 돋보임
- 느긋함이 느껴지는 작품
- 공간에 생기를 줄 형태로 생각함
- 조형 어법이 단순하고, 배치가 단조로운 부분이 아쉬움
- 한글 자모를 빈(Bean)의 형상으로 제작한다는 것이 신선한 시도로 보임. 다만 조형물 표면의 패턴이 의미보다는 디자인적 요소로만 작용하는 것처럼 보여 아쉬움
- 작가의 기존 글자 작업을 유기적으로 잘 풀어냄
- 작가의 개인 글자작업을 조각적인 부분으로 끌고 나온 점은 좋으나, 조형 자체로만 보면 신선하다고 보기 어려움
- '느긋'이라는 단어와 형태가 묘하게 매칭이 되는 느낌도 있음
- 콩의 띠, 색감의 선택 등 위트가 느껴짐
- 이 작가의 다른 작업에 비해서 이 작품이 더 공공 미술적이고, 친밀하게 느껴짐

▢ 5번 안건: 낙원

- 조형적으로 유려하고, 예술적으로 느껴지는 석재 작품
- 다소 고전적으로 느껴지기도 한 부분이 있지만, 큰 무리 없는 조각 작품
- 재료를 다루는 작가의 숙련도는 인정하지만, 형식과 내용이 기존의 많은 조형물과 차이가 없어 예술적 감흥을 느끼기는 힘듦
- 석재의 조형감이 이전 작품보다 훨씬 좋아짐
- 위협적인 느낌도 들고, 필요 이상으로 과장된 부분도 있어 '낙원'이라는 주제와 이 작품은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듦

▢ 6번 안건: 영원한 빛 - 꿈

- 삼각뿔, 산위에 얹힌 초승달이 불안정해 보임. 바닥에 내려앉은 달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됨
- 형태는 이전 작품 보다 간결해졌으나, 인용된 주제의 해석이 매력적이지 않고, 작가의 개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 한 것 같음
- 이전 작품 보다 표현 방식이나 소재가 더 평범하고 장식적으로 느껴짐. 야간 빛 공해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듯함
- 직접적인 해석과 구현으로 인해 예술적 흥미가 저감되는 부분이 아쉬움
- 장소적 맥락성이 부족하고 예술적 긴장감을 느끼기 어려움
- 장소와 잘 어울린다고 보기 어려움
- 동심도 느껴지고, 주변 공간에 다른 분위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임

▢ 7번 안건: ocean in the cup

- 미디어 설치작품으로서 새로운 설치의 형식을 시도한 것으로 보여 신선함.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작품 특성상 컵의 조형성과 맞는 더 다양한 영상작품 필요
- 공간의 맥락상 컵이 인지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하여 작가의 의도전달을 위한 장치가 필요해 보임
- 대중 친화적 요소가 흥미로우나 다소 지루함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음
- 아이디어는 색다르고 참신하지만, 시각적 완성도가 높다고 할 수 없음
- 형태는 좋으나 영상 내용은 작가 창작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친근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음
- 바다가 보이는 모습이 건물 내 편안한 분위기로 장소를 환기시킬 것 같음
-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게 된다면 신선하게 느낄 것 같음
- 시도 자체는 신선하나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평범함이 느껴짐
- 찻잔의 형상이나, 찻잔에 담겨있는 미디어 형태 또한 신선하게 느껴짐
- 내용이 반복적인 부분은 있지만, 잔잔한 백그라운드 느낌도 들고, 규모의 미학도 느껴지고, 살짝 기울어져있는 모습도 재밌고, 시민들의 편의도 생각한 작품 같음
- 이전에는 없던 타입이라 매우 신선하고 재밌음
- 영상 자체가 작가 본연의 작업이 아닌 점은 아쉽고, 미디어 작품 또한 조형물처럼 작가 본연의 작업이 들어갔으면 좋겠음

▢ 8번 안건: Corner Stone

- 장소적으로 좁은 모퉁이인 점을 돌을 쌓아올린 것 같은 형태로 잘 활용한 것 같음
- 작가 개성 표현, 창작성의 측면에서 흥미롭거나 신선하지 못 함
- 조명의 기능이 미술작품의 가치를 약화시키는 것 같음
- 무난함과 익숙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장소성을 좀 더 고려했으면 좋겠음
- 유닛과 형태 자체는 귀엽고 친근하나 전체적으로 너무 거대함
- 형태가 평이하고 어색
- 코너에 서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재미있어 보임
- 작가가 이런 비슷한 작업을 하긴 했지만 실내에서 소규모로 했고, 외부에 이런 타입으로 진행한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작품의 완성도나 밀도가 어느 정도로 구현될지 궁금함

▢ 9번 안건: Merry go round

- 발상의 흥미로운 요소가 좋으나 작가의 이전 작품이 가지는 신화적 요소가 부족한 점이 조금 아쉬움
- 이런 시도들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신선하고 좋게 느껴짐
- 공간과는 무리 없이 잘 어울리고, '이게 뭐지?'와 같은 낯선 느낌도 들고 생경함도 느껴짐
- 신선한 시도지만, 작품의 견고성에 대한 고려는 필요함
- 세련되고 독특한 작품
- 재밌고, 세련되고, 준수한 작품
- 조형 언어가 산만하고 장소와 불일치
- 주변 환경에 어울리지 않아 보임
- 공공미술로서는 신선한 작품
- 공간에 표정을 줄 수 있는 작품으로 생각됨
- 의미적 맥락과 괴리된 요소적인 부분의 차용이 조형적 완성도를 저해함
- 단순한 병렬과 조합으로 이루어진 설치 조형물

▢ 10번 안건: Rhythmic Wave

- 리듬감이 느껴지는 작품
- 오히려 사람이 사이로 통과할 수 있으면 더 재미있을 것 같음
- 차라리 규모를 좀 더 키우고,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게 하거나, 작품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시각도 재미있을 것 같음
- 애매하게 느껴짐. 동적인 느낌도 없고, 형태감도 특별하다고 느껴지지 않음, 동적으로 움직여서 일루전 형상이 생긴다면 좋을 것 같음
- 의미적, 조형적 맥락이 아쉬움
- 패턴의 반복으로 이루어진 설치 조형물 같은 느낌.
- 조형적 전개 부분에서 상상력이 다소 아쉬움
- 산업화된 소재와 형식(스테인리스 스틸 관과 도색)이 미술품의 가치를 약화
- 무게감이 적어 건물과 거리의 답답함을 극복할 것으로 생각함
- 흥미로운 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무리한 조형성이 지속적인 공공작품으로서 아쉬움
- 작가의 역량이 이 작품에는 적극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아쉬움

▢ 11번 안건: Wind Deer

-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재질감이 공간에서 지나다니는 누군가가 발견하면 잔디밭에 사슴이 뛰노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낄 것 같음
- 동물은 흔한 주제지만, 색감이나 형태에 기교를 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한 점이 매우 좋음
- 이전에 나왔던 동물 형태의 다른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디테일이나, 가격, 마감 또한 매우 좋음
- 사슴이라는 소재가 공간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기 어려움
- 고전적인 느낌이 들지만, 차분하고 안존한 느낌이 들어 좋음
- 공간과 조화를 이루지 못 함
- 무난하지만, 작가 창작비가 너무 적음
- 수작업이 많이 들어간 작품으로 디테일이 좋고, 동선을 가지고 만든 리듬감이 느껴짐
- 친근감이 높을 것으로 생각함

▢ 12번 안건: industrial symmetry column

- 작가가 의도한 의미적 요소의 조형적 전개가 전체 조형물의 형태적 단순함을 보완하는 무난한 작품
- 소재의 이질감이 다소 아쉬우나 무난한 작품
- 동양적 미감을 현대적 감각으로 잘 구현하여 공간과 잘 어울림
- 산업화된 소재(스테인리스 스틸, 우레탄 도장)와 조명 형식이 미술품의 가치를 약화시키는 것 같음
- 색감과 기둥의 형태가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음
- 형광 느낌이 나는 주황색 톤을 사용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들기도 함
- 밝은 벽돌색 느낌도 나서, 차가운 느낌의 재질을 밝은 색감으로 커버하는 것 같음
- 공간이 칙칙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이 조각이 공간을 잘 살려낼 것 같음
- 금속 접합 부분들도 흥미롭게 느껴지고, 작가의 이전 작업들에서 기둥 작업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작품의 완성도 또한 기대가 됨
- 메탈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색감을 통해 다른 느낌으로 전환 시킨 것 같고, 조형물의 각 유닛들이 흥미로움

▢ 13번 안건: 구름, 꿈, 나무-라르고

- 산업화된 소재(스테인리스 스틸, 우레탄 도장)와 조명 형식이 미술품의 가치를 약화시키고 있음
- 형태적, 조형적 재미는 있지만, 작가적 예술적 맥락은 느끼기 어려운 작품
- 큰 무리 없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설치 조형물
- 많이 봐왔던 익숙한 작품
- 과다한 조명이 오히려 비효과적임
- 평이하고 장식적으로 보임
- 유사한 작품들이 있지만, 이 작품은 세련되게 느껴짐
- 작가가 왜 이 색감을 선택했는지 의문이 듦

▢ 14-1번 안건: 웰컴•Welcome

- 이미 많이 설치되어 온 동물 조각의 형식으로, 관람자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한다고 볼 수 없음
- 의미적 해석이 아쉬우나, 위트가 느껴지는 설치 조형물
- 설치 장소가 협소하여 다소 산만하게 느껴짐
- 공간에 흥미를 줄 수 있는 작품
- 좋은 의도의 작품이지만 그 의도가 너무 직접적이라 예술적 흥미는 저감
- 색과 형태가 필요 이상 과장됨
- 조형적으로 익숙함
- ‘웰컴’이라는 제목을 조형물이 잘 담아냈다고 보기는 어려움

▢ 14-2번 안건: 도시이미지

- 지나치게 반복되는 형태적 패턴이 시각적인 지루함과 부정적 이미지를 연상시킴
- 작가적 개성이 좀 더 드러났으면 좋겠고, 작품의 완성도 또한 아쉬운 작품
- 너무 단순한 구현인 점이 아쉽고, 작가의 역량이 충분히 드러나는 것 같지 않아 아쉬움
- 건축 공간과 어울린다고 보기 어려움
- 작가의 다른 작업들이 더 좋게 느껴짐
- 작가의 개념이 좀 더 드러날 필요가 있어 보임
- ‘도시이미지’라는 제목과 이 조형물이 잘 어울린다고 보기 어려움

▢ 15-1번 안건: 오랜 지혜로부터

- 작가의 평상시 작품과 같은 맥락에 있으나, 소재의 변용으로 인한 지루함으로 작품의 흥미로움이 반감된 평이한 작품
- 4억 5천만 원이라는 작품가격에 대한 설득력 부족함
- 텍스트의 일차적 구현에 머무르며 조형성이 부담스러움
- 작가의 역량과 기존 작품들에 비해, 작품의 개념과 구현이 일차원적으로 소통되어 흥미를 약화시킴
- 설명 판을 통해야만 작품의 의미가 인지될 것으로 보임
- 글자 같은 형식이 해외나 국내에 너무 많고, 고깔이 뒤집어진 형태나 글자의 내용들이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려움
- 글자가 꼭 가독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폰트, 내용 모두 진부함이 느껴짐
- 작가의 본래 매력이 조형 작업으로 넘어오면서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음

▢ 15-2번 안건: text, textured(Sky, Blossom)

- 짝을 이루는 작품으로, 평면을 단조롭지 않게 색채로 표현한 것 같음
- 미니멀한 형태적, 조형적 차용을 통한 표현은 무난하지만, 패턴에서 보이는 작가적 창작성이 다소 긴장감 부족하고, 지루해 보이는 아쉬운 작품
- 연속된 두 작품 간의 차별화되지 않은 점은 다양한 미적 체험 측면에서 아쉬움
- 진부한 형식, 관람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고 볼 수 없음
- 회화적 요소와 입체적 질감이 잘 어울림
- 무난한 작품
- 공간에 밝음을 주는 장식적으로 보일 것임
- 공간에 무난하게 어울리는 작품

▢ 16번 안건: 비 네이쳐(Be Nature)

- 단순하지만 위트 있는 은유가 보임
- 작가 기존 작업과 전혀 다른 맥락으로 작업의 밀도나 완성도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려움
- 공간에 비해 내용물 과다한 느낌도 있음
- 조형과 개념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보임
- 작품 자체의 재미가 느껴짐
- 공간에 재미를 불어넣을 것임
- 작가의 작업들을 보면 작품들의 경향이 발랄하고 센스가 느껴짐
- 귀엽고 발랄함이 느껴짐

▢ 17-1번 안건: Millennium Gate

- 흥미로운 조형으로 무난해 보임.
- 공간을 방해하지 않는 시원함이 있음
- 꽤 넓고, 큰 공간인데, 너무 단순한 조형물로 구성하는 점은 아쉬움
- 조형적으로 흥미롭지 못 하고, 작가의 개성도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단순함이 오히려 주변 배경에 스며든 느낌을 줌
- 단순하지만, 명료하다는 느낌도 듦
- 전체적인 기획 의도와는 크게 벗어나지 않으나, 패턴의 반복에 따른 형태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설치 작품
- 문을 형상화한 의도와 조형성이 공간과 잘 어울림
- 진부한 형식과 금속관 용접이 미술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약화시킴
- 공간과 잘 어울리는 형태

▢ 17-2번 안건: 별 다는 소녀

- 기존 작품을 연상시키는 유사한 형태, 장소적, 의미적 맥락을 더 고려하여 주제를 설정했으면 좋겠음
- 소녀의 전형성이 새롭지 못 함
- 작가 고유의 특수성이 보이지 않아 아쉬움
- 예술적 감흥을 쉽게 느끼기 어려운 해석과 시도
- 곰 인형을 든 소녀상이라는 너무 익숙한 표현과 주제
- 조형 언어가 현대적이라고 볼 수 없음
- 작가의 의도와는 다르게 읽힐 소지가 있음
- 공간에 재미를 줄 수는 있음
- 곰 인형을 손에 쥐고 있는 소녀는 굉장히 흔하고 클래식한 주제이고, 작업의 형식이 엄청 익숙한 주제를 가지고 조금의 변형을 주는 것 같음
- 인물을 하나 세운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나 메타포가 담겨져 있어야 하는데, 선택한 주제는 너무 익숙하고 평이함
- 전체적인 기획이 밀도 있고 좋으나 이 작품은 조금 아쉬움

▢ 17-3번 안건: 얇은 계단

- 해외 유명작가를 연상시키는 형태적 유사성
- 개념 이상의 조형적 표현이나 예술성 부족한 조형적 완성도
- 흥미로운 조형성이 공간에 활력을 줄 수 있다고 보임
- 건축과 미술이 결합되는 점은 좋으나, 계단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미술을 위해서 계단을 두는 것은 아닌지 의문, 작품의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함
- 색다르고 독특함이 느껴짐
- 건축의 일부가 된 조형물로 시도 자체는 신선하나 미술품 예산이 건물 내 기초 구조 보강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여 예산 사용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임
- 재미를 불어넣는 요소가 많은 작품
- 건축적인 구조를 가지려면 작품 가격 자체는 과다한 편은 아님

▢ 17-4번 안건: Condition - Light

- 회화 작품에서도 풍경을 다루는 작품은 많지만, 이 작품은 풍경 속에서 작가의 시선을 다루는 요소가 느껴짐
- 냉랭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건물 내부에 자연적인 분위기로 환기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음
- 작품의 소재가 다소 평이하지만, 수공업적 완성도에 의한 작품의 가치가 돋보이는 회화 작품
- 소나무라는 소재가 주는 익숙함을 넘어서는 미적 체험이 아쉬움
- 시각적 시원함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함
- 상상화라는 점도 재밌고, 공간과도 잘 어울림

▢ 17-5번 안건: Un Passage-통로

- 형식과 내용이 평이함
- 다소 진부해 보이는 컬러 스트라이프 조형을 통한 현대 회화작품
- 회화적 맥락에서 큰 무리 없으나 흥미를 주기에는 아쉬움
- 장소와 잘 어울림
- 색다르진 않지만 무난하게 좋은 작품 같음
- 작가 고유의 오리지널리티는 확실하게 느껴짐
- 본인의 작업 중에서도 색감을 많이 정제한 좋은 작품
- 작가의 이전 작품들보다 이 작품이 훨씬 좋음

▢ 17-6번 안건: Untitled R1126-R1129

- 밀도 높은 섬세한 묘사가 미니멀한 색상의 배경과 어우러지는 평면작품
- 공간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색채가 무난하나 다소 평이한 주제가 아쉬움
- 공간과 어울리지 않음, 조형 언어 평이
- 건축물 환경과 부조화
- 건물 내부를 부드럽게 만들 것으로 생각함
- 작가 고유의 특성이 느껴지는 작품

▢ 18-1번 안건: 흐름의 탑-Tower of Flow

- 상투적 조형성을 벗어난 점이 좋음
- 장소성과 조형요소에 대한 근거가 다소 작위적으로 느껴져 오히려 작품의 흥미를 감소
- 작가 본연의 작업과 같은 맥락, 밀도 높음
- 산만하고 부자연스러운 느낌. 장소성이 의도한대로 반영되어 있어 보이지 않음
- 전통과 새로움의 조화를 인지할 수 있는 작품으로 존재할 것임

▢ 18-2번 안건: 경계의 숲-Forest of Boundary

- 작가 본연의 작업과 같은 맥락의 작업으로 밀도가 높음
- 열차 내 승객들의 시선으로 보면 재미있을 것 같음
- 영상 작업 자체는 괜찮지만, 위치, 거치대 같은 모양, 조형물의 크기가 제대로 어울리지 않음
- 건축물 자체가 자기 완결적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덧붙이더라도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음
- 플랫폼과 영상 내용의 매칭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 미디어 작품 지지대의 조형성 부족
- 영상 작품의 지속적인 교체가 요구됨
- 설치 이후에도 예술적 내용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기를 희망함

<심의결과 채점 집계 및 결과발표>

오늘 27개 작품 중 1, 2, 3-1, 4, 5, 7, 8, 9, 10, 11, 12, 15-2, 16, 17-1,3,4,5,6, 18-1,2 번 안건이 승인되고, 나머지는 부결되었습니다.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결과에 이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2020년 제1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